

Practicing, a musical delight!

연습, 음악적 기쁨이여!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악기를 배우는데 있어 어떻게 연주해야 하고, 지시에 따라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까지 배우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는 애초에 '연습하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유용한 결과를 내는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의미하는 'Travailler (일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만일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연습하는 데만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연습의 원래 목적을 쉽게 잊게 될 것이고, 결국 연습 자체가 스스로를 지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음악가로서 장담하건대, 연습 없이는 절대 음악을 홀려가게끔 만들 수 없다.)

필자가 학생일 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해." 그러나 필자의 첫 반응은 이랬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하는 데에서 오는 큰 기쁨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해야하는 전혀 기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연습은 나 자신과 비올라만의 시간을 통해 여유로움 속에서 아주 만족스럽고도 보람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은 좋은 연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다. 이 글의 주제가 아주 크고, 이에 대해 쓸 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연습시간을 새롭게 하는 시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연습 방법이 따로 있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기와 한 사람의 관계는 각각 고유하기 때문이며, 각자의 연습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체 어느 누가 타인에게 자신의 연습 시간을 관찰하게끔 하겠는가? 어려운 부분에 마주했을 때 개개인의 발전 속도는 다 다르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인 시간 내에 즐겁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현상에 부합하는 지침을 따라야 하며,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연습방법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지적 활동이 결합된

꽤 복잡한 과정이다. 연습할 때는 신체적 활동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장시간에 걸친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 특정 근육, 힘, 유연성, 인내심, 속도와 민첩성 등이 발달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마인드를 개발해야 하고, 연주하는데 정확하고 세밀한 속도를 결정하는 신체적 움직임(영감, 손가락의 움직임, 자세)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뇌에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한다.

연습은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뇌를 조종하고, 후에 반복되어야 할 신체적 활동을 외우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비유하는 이유는, '최고의 하드 드라이브'인 우리의 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연습은 편안하고 100% 집중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신감 있게, 그리고 편안하지만 졸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효율적으로 연습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폰은 책상 위에 올려두지 말아야 한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별이 좋은 날에 산책을 가는 것처럼 연습을 항상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여러 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시험이나 연주회를 준비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염려를 제쳐두고 마음을 비워서 연주자체에만 집중 하는 것이다.

반면 연습량에 대한 답은 잔인할 수 있다. 배우는 속도, 디지털 장비, 집중 가능한 환경까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거장의 연습량(어릴 적부터 성공한 솔리스트가 될 때까지)을 환산해 본다면 그 시간 양에 대해 매우 놀랄 것이다. 물론 한 분야의 거장이 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비밀도 아니지만, 시간의 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연습 내용에 소홀한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연습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필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지만 예상과 달리 진전이 없을 때 스스로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서 이런 좌절감을 피하는 연습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에너지'와 '열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연습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레슨 중에 선생님이 지적한 부분들(할 쓰기,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해야 할 때 생기는 문제점, 몇 마디에 이르는 특정 패시지, 명확하게 소리내야 하는 프레이징 등)을 분석하고 연습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연습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한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 약간 실험적이긴 하지만, 연관된 문학 작품을 읽는다거나 교본을 보고 손가락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본의 양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론에 따르는 신체적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곡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만큼 연습 시간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바르톡의 <비올라 협주곡>에는 어렵기로 소문난 5도 음정 패시지가 있는데, 곡에 달려들어 '싸우기(?)' 이전에 다른 형태와 포지션에서 5도 음정을 시도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연습의 주제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새로움과 참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근육과 정신의 피로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완전한 음정을 맞추는 작업(만일 그런 게 존재한다면)은 그야말로 큰 집중을 요구하는데, 귀가 피곤해지는 시점부터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습 도중에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낫다.

새로운 악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곡 분위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소리의 울림'과 같은 음악적인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면 연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음악적인 아이디어 표현'을 인식해야만 악보를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닉과 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 테크닉의 상당 부분이 음악사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19세기 말 산업 혁명시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다. 이 시기 이전에는, 작곡가이자 교육자였던 Marin Marais, Corelli, Bach가 쓴 작품 모음집(첫 교육 교재인 동시에 높은 예술성을 지녀 현재는 대작으로 평가된다)이 있었다. 특정 기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교본이라 불리는 책은 그 후에야 출현했다. 그러나 테크닉 자체를 순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적 목적과 테크닉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리가 스케일을 연습할 때 스케일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닌,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연습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음악적 아이디어의 성숙도, 음악적 분위기, 그리고 해석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실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듯 연주하고, 다른 음악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며, 음악적 자신감을 발휘하며 내놓는 해석 등은 음악성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필자는 모든 연습의 요소들이 한데 모여 예술적인 결과를 내놓을 때, "곡이 무르익는다."라고 표현한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Sviatoslav Richter)의 말을 좋아한다.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면, '연습'은 재미있고 보람되며, 본인의 열정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음악이 나타나며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㉞